

군산-서천 연결 '동백대교' 개통

27일 공식 개통, 2008년 착공 이후 10년만에 신설

군산시와 서천군 두 지방자치단체 상생 화합의 발전을 위한 톨모텔인 동백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해안 물류소통의 거점이자 새만금, 근대역사문화, 국립생태원 등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군산~서천 간 동백대교가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공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군산시 해방동에서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국도 4호선(3.185km) 동백대교 건설사업을 2008년 착공한 이후 총 사업비 2,380억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4차로로 신설했다.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그동안 금강 하굿둑을 이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운행거리는 11km(14km→3km), 운행시

간은 25분(30분→5분) 단축됨은 물론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 간선 도로로서의 도로이용 편익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개통되는 동백대교는 개통 후 안전한 통행을 위해 CCTV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물론 습윤 염수 제설장비 등 자동화 안전 시설을 갖췄다. 또한 동백대교 해상구간을 일상관리하게 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긴급을 요하는 낙하물 제거와 제설 작업은 군산시에서 조치하고, 필요한 자재(염화칼슘, 소금)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원되는 협력체제로 구축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한 동백대교 건설에 적극 협



군산시와 서천군 상생 화합의 발전을 위한 동백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립니다"며 "동백대교 개통을 통해 군산과 서천이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강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해 양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시군은 동백대교 개통을 기념해 상생화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지난 11월 29일(군산·서천 행정협의회 시) 시장·군수 및 시의장·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월명공원과 장항 동백공원에서 동백나무 교차식수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산=김정훈기자·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유라시아 철도 거점 익산역 역할·전략 세미나

익산시가 익산역 세미나실에서 유라시아 철도거점 익산역 역할과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20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이 한반도 철도역에서 북한을 넘어 유럽 대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객과 물류 부문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개발이 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마련됐

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와 익산시청 이창현 박사는 각각 유라시아 철도 정책 의의와 익산역 포지셔닝, 유라시아 철도 교통거점 익산역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국회의원·시장·시의장과 시민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 남궁문 총장을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

필 교수,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김연규 박사,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관광학박사 김현구 역장, 전북대학교 장태연 교수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60분간 열렸다.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익산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시민들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익산시와

지역 차원의 다각적 노력으로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노선은 한반도 중남철도(TKR),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노선으로 이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한국의 물류가 세계 3대 경제축 중 '유럽연합(EU)과 동북아'의 2개 경제축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20일 제 214회 익산시의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요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1조 1,964억 2,400만원으로 2019년도의 익산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조규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익산시의 추진사업 예산 및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시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견제와 건전한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주차장, 축제 및 행사 예산편성 관련한 이순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확산방지 및 공조체계 매뉴얼을 구축해 운영해 온 군산시가 결실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해 평가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관내 식품점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교육·홍보 사업 실시,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안전성 수거 검사를 통한 종합대응 체계유지 등 식중독 발생 최소화에 기여한 바가 커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내년에도



전북도가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은 식중독 예방 교육.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식품위생과는 직원들

이 매주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점객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내년 사자성어 구동존이(求同存異)

익산시, '서로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길 힘쓴다'

익산시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사자성어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길 힘쓴다'는 뜻으로 1955년 당시 중국 부주석 저우언라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래된 말이다. 2019년 한층 더 도약할 익산시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6월, 지난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정현을 시장 체제로 민선 7기 시대를 열었다. 변화와 격랑의 시기에도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단지과 식품클러스터 분야를 안정적 궤도에 안착시켰다. 매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복지

부문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지역 복지사업 평가 대상을 수상하며 복지수도로써 명성을 이어갔고 2019년 6,872억 원의 역대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충실히 다져왔다. 2019년 기해년에도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인 구죽,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신·구도심 균형발전,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푸른 익산 만들기,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9년도에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생활 안전과 경제 활성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며 "함께 화합하여 익산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립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군산시립도서관은 20일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김우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군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해 도서관에서 추진한 업무 실적 보고와 더불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서관 신축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료실 환경 개선 등 2019년 주요추진 사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그 밖에도 새롭게 신축되는 도서관

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조성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미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